

야구

4

2020년 1월 22일 수요일

스포츠동아



두산 안권수

재일교포 3세 두산 안권수 “아오키·정수빈이 롤모델”

“야구·한국어 공부 모두 열심히 할 것”

지난해 8월 열린 2020시즌 KBO 신인드래프트에서 두산 베어스의 2차 10라운드(전체 99번) 지명을 받은 안권수(27)는 재일교포 3세대. 일본 와세다실업고~와세다대를 졸업한 뒤 독립리그와 사회인야구에서 활동하며 꿈을 놓지 않은 결과가 KBO 리그 구단의 지명으로 이어졌다. 트라이아웃 당시 부상으로 자기 기량을 충분히 보여주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두산은 안권수의 잠재력을 믿었다. 정확한 타격과 빠른 발 등 디테일에서 힘을 보탤 수 있는 자원으로 판단했다.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언어의 장벽부터 뛰어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24일 팬페스트 행사 때만 해도 한국어가 다소 서툴렀지만, 지금은 기본적인 의사소통에 큰 문제가 없다. 16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KBO 신인선수 오리엔테이션 행사 때도 일일강사로 나선 이종엽 KBO 홍보대사와 이종열 SBS스포츠 해설위원의 강연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였다. 안권수는 “야구와 한국어 공부 모두 열심히 하고 있다”며 “한국이 일본과 비교하면 춥긴 하지만, 음식이 맛있다. 특히 감자탕을 좋아한다”고 했다.

안권수의 강점은 빠른 발과 정확한 타격이다. 고교 시절에는 줄곧 테이블세터로 나서며 중견수와 우익수를 맡았다. 그 강점을 확실히 살리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나는 홈런타자가 아니지만, 정확한 타격과 빠른 발을 활용한 도루에도 자신 있다”는 말에서 자신감이 느껴졌다. 인터뷰에 동석한 두산 김태준 홍보팀장은 안권수를 가리키며 “신인 체력테스트에서 1등을 한 친구”라고 힘을 실어줬다.

롤 모델은 아오키 노리치카(38·야쿠르트 스왈로스)와 팀 선배 정수빈(30)이다. 공교롭게도 정수빈의 롤모델도 아오키였다. 탁월한 콘택트 능력과 빠른 발, 주루센스, 수비력까지 많은 게 닮았다. 안권수는 “아오키 선수는 학교 선배다. 두산에선 정수빈 선수의 스타일을 닮고 싶다. 내가 추구하는 스타일과 비슷하다”고 했다. 덧붙여 “1군에서 최대한 많이 뛸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는 포부도 숨기지 않았다.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홈런왕’ 박병호 연봉 5억 올랐다



키움은 2020시즌 연봉협상을 모두 끝냈다. 2019시즌 홈런왕 박병호는 지난해 15억 원에서 5억 원 오른 20억 원에 사인해 KBO리그 역대 네 번째로 연봉 20억 원 이상을 받는 선수가 됐다. 스포츠동아 DB

박병호, 리그 4번째 ‘20억대 연봉’

33홈런·팀 준우승 기여 등 인정
마무리 조상우 6000만원→2억
키움 45명 전원 연봉계약 마무리

키움 히어로즈 박병호(34)가 연봉 20억 원 반열에 올랐다.

키움은 21일 프리에이전트(FA) 미계약자를 제외한 2020시즌 연봉 계약 대상자 45명 전원의 연봉 계약을 마무리했다.

팀 내 최고 인상액의 주인공은 ‘홈런왕’ 박병호였다. 박병호는 2019시즌 122경기에서 타율 0.280, 33홈런, 98타

점, 92득점으로 맹활약해 키움의 한국시리즈 준우승에 크게 기여했다. 33홈런으로 KBO리그 전체 홈런 1위도 기록해 홈런왕에 올랐다.

박병호는 메이저리그 도전을 마치고 난 뒤인 2018년부터 친정 히어로즈로 돌아왔다. 포스팅시스템을 통해 빅 리그에 진출해 2018년부터 매년 연봉 협상으로 재계약을 이어오고 있다. 2019년에는 복귀 첫 시즌과 같은 15억 원에 도장을 찍었고, 올해는 5억 원이 오른 20억 원에 최종 사인했다.

이로써 박병호는 KBO리그에서 네 번째로 연봉 20억 원 이상을 받는 선수가

됐다. 앞서 20억 원 이상의 연봉을 받는 선수들은 롯데 자이언츠 이대호(25억 원), KIA 타이거즈 양현종(23억 원), NC 다이노스 양의지(20억 원)였다.

박병호 외에도 키움 선수 대부분은 연봉 혼풍을 맞았다. ‘파이어볼러’ 조상우(26)는 기존 6000만 원에서 233.3% 인상된 2억 원에 계약했다. 이는 팀 내 최고 인상률이다. 투수 고과 1위를 기록한 최원태(23)는 1억 원이 오른 3억 원에 도장을 찍었다. 주장 김상수(32)는 3억 7000만 원에 새 시즌을 시작한다.

고액 연봉인 1억 원에 새롭게 도달한 선수는 내야 멀티플레이어 김혜성(21)

이다. 기존 7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이 올라 1억 원을 받게 됐다. 키움의 2020시즌 연봉 계약 대상자 45명 중 역대 연봉을 받는 선수는 투수 4명, 야수 6명으로 총 10명이다. 키움은 연봉 계약자 전원의 금액을 발표하기에 앞서 먼저 연봉 계약을 마친 김하성(5억5000만 원)과 이정후(3억9000만 원)의 새 시즌 연봉을 발표하 바 있다.

2020시즌 연봉 계약 대상자 45명 기준, 연봉 총액은 63억7600만 원이며, 지난해 52억8300만 원에서 10억9300만 원(20.7%) 올랐다.

정운상 기자 award@donga.com

2~3월 나홀로 메사행...한화, 연습경기 고민되네!

미국 애리조나 피오리아 거쳐 메사로 SK·NC·KT 등 2시간 거리 투손 밀집

한화 이글스는 올해부터 스프링캠프 장소를 일본 오키나와가 아닌 미국 애리조나로 바꿨다. 30일 출국해 40일 가량 애리조나 피오리아(2월 1~16일)와 메사(2월 17일~3월 11일)에 체류한다. 초행길이다 보니 불가피하게 시행착오도 겪을 전망이다.

이들 의식한 한용덕 한화 감독은 얼마 전 사전답사 차원에서 애리조나를 다녀왔다. 15일 귀국한 뒤 몇 가지 보완점을 놓고 구단 실무자들과 머리를 맞댔다. 훈련장인 피오리아 스포츠 콤플렉스와 메사 레드마운틴 베이스볼 콤플렉스 모

두 시설 측면에선 나무랄 데가 없었다. 다만 메사에선 시설 외적인 애로사항 몇 가지가 확인됐다. 무엇보다 주말에는 이용할 수 없는 점이 아쉽다.

한 감독은 “시에서 설립한 시설이라 주말에는 현지 각급 클럽들의 경기가 우선 배정된다. 일정을 확인해보니 주말리그가 계속 열리더라”며 “어쩔 수 없이 주말에는 연습경기 스케줄을 잡아 다른 곳(구장)으로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습경기 상대를 구하는 일도 수월치만은 않다. 한화가 메사에서 지내는 등

안 애리조나에는 SK 와이번스, NC 다이노스, KT 위즈 등 KBO리그 3개 구단이 머무는데 모두 투손에 몰려있다. 애리조나 중남부의 메사와 남동부의 투손은 자동차로 대략 2시간 거리다. KBO 구단들과 연습경기를 치르려면 이동에 만 왕복 4시간을 쓰는 수고를 감내해야 한다.

스프링캠프 전반기는 개인별 준비상태와 팀의 기본전력을 확인한 뒤 점차 훈련강도를 높이는 시기라 연습경기가 그다지 필요 없다. 그러나 후반부에는 실전(연습경기)을 통해 훈련 성과를 점

검하는 한편 투타에 걸쳐 베스트 라인업을 완성해야 한다. 실전은 필수다.

결국 한화 입장에선 현지 대학 및 메사와 그 인근에 스프링캠프를 차린 메이저리그 팀들을 대상으로 스파링 파트너를 구해야 한다. 메이저리그 팀들의 경우 이 시기에 시범경기를 소화하기 때문에 주전급 A팀을 상대하기는 어렵다. 한 감독은 “좀 아쉽긴 한데 현지 대학과 프로팀들을 열심히 수소문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화는 애리조나 캠프 참가자 명단을 설 연휴 직후 확정할 계획이다. 정재우 기자 jace@donga.com

김민 “초구 122번 공략 당했지만 올핸 다를 것”

초구 피안타율 0.369...약점 노출
체인지업 연마...속구 위주 벗어나

아무리 좋은 공을 가진 투수도 타자에게 읽히는 순간 경쟁력이 반감된다. 투수는 숨기기, 타자는 파악하기에 목을 매는 이유다. 공격적인 패턴이 강점일 때도 있지만 타자에게 쉽게 약점을 노출하기도 한다. 풀타임 첫 시즌을 치른 김민(21·KT 위즈) 앞에는 ‘돌아가기’라는 과제가 놓였다. 입단 첫해인 2018년 9경기에 등판해 가능성을 보였던 김민은 지난해 27경기에 등



KT 김민

판했다. 풀타임 첫 시즌 성적은 6승12패, 평균자책점 4.96으로 절반의 성공이었다. 등판이 잦아지며 약점도 노출했다. 김민은 지난해 674명의 타자를 상대했는데 이 중 초구를 타격당한 건 122번에 달했다. 리그 전체 1위다. 결과도 나빴다. 김민의 초구 피안타율은 0.369로 리그 평균(0.334)보다 높다. 김민을 만나는 타자들이 시작부터 적극적으로 배트를 냈고 어느 정도 재미를 봤다는 의미다. 특히 초구, 2구에는 속구를 택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타자들의 노림수에 공략 당했다.

김민도 이를 모르지 않았다. 속구 위주의 피칭으로 벽에 막히자 시즌 중반부터 박승민 투수코치와 체인지업을 연마하기 시작했다. 기존의 장기였던 슬라이더와 더불어 결정구로 쓰고자 했지만 효험을 보지

못했다. 이강철 감독은 지난해 “체인지업이 그렇게 좋은데 왜 이렇게 아까냐”라며 “안 던지면 2군에 보내겠다”고 농담 반 진담 반 업포를 농기도 했다.

실제로 체인지업을 던지기 시작한 초반에는 어느 정도 효과를 냈지만 오래 가진 못했다. 이 감독은 “고전하는 것도 경험이다. 올해 부상 없이 로테이션을 도는 데 성공한다면 2020년 좋은 자원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사령탑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한 걸음 더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KT의 2020시즌 밀그램에 김민은 큰 지분을 갖고 있다. 후반기 고전에도 선발 후보군 경쟁에서 선두권으로 꼽힌다. ‘프랜차이즈 에이스’라는 타이틀을 지키기 위해서는 돌아가기가 필요하다. 수원 | 최익래 기자 ing17@donga.com